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코스메카코리아(241710)

소재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김지민 전문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 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 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메카코리아(241710)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화장품 제조업체

기업정보(2021/06/30 기준)

대표자	조임래/박은희
설립일자	1999년 10월 05일
상장일자	2016년 10월 28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화장품 제조업
주요제품	화장품

시세정보(2021/11/01 기준)

현재가(원)	15,00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602
발행주식수	10,680,000
52주 최고가(원)	19,500
52주 최저가(원)	11,750
외국인지분율	1.69%
주요주주	박은희

■ 글로벌 시장에 특화된 OGM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장품 제조업체

코스메카코리아(이하 동사)는 국내 화장품 ODM/OEM TOP3 기업 중 하나이다. 글로벌 선두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다수의 화장품 브랜드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ODM에서 나아가 OGM(Original Global Standard and Good Manufacturing)이라고 불리는 판매 국가의 트렌드, 유통구조, 법적 규제 등을 고려한 독자적인 글로벌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사의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최종소비자를 고려한 제품 개발로 고객사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독자적인 자동화 생산 시스템(CPS, Cosmecca Production System)을 구축하여 불량률 감소 및 생산 효율화를 이루었다.

■ 뛰어난 연구개발 역량 보유

동사는 설립 초기부터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화장품 제형, 제조 공정을 비롯한 화장품 전반에 대한 기술력을 축적하였다. 연구개발 인력이 전체 인력의 약 40%에 달하며(한국법인 기준), 전문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기술을 다수의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였다. 동사는 과거 국내 BB(Blemish Balm)크림의 유행을 선도하였으며, 특히 BB크림과 톤업크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코스메슈티컬, 안티폴루션·마스크프루프, 기능성 아크네 등 시장의 흐름에 맞춘 기술 및 제품 개발을 통해 제품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글로벌 생산거점 보유 및 중국 실적 양호

동사는 한국, 중국, 미국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기초 및 OTC 제품 생산역량이 뛰어난 잉글우드랩을 인수하며 미국 ODM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거점을 확보하였다. 중국에서는 코스메카포산 공장이 2019년 9월 가동을 개시한 코스메카차이나로 통합되었다. 원스톱 생산 시스템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법인은 높은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매출의 90% 이상이 중국 로컬 고객사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3,033	66.3	98	3.2	92	3.0	7.5	3.9	83.6	840	11,702	38.7	2.8
2019	3,470	14.4	83	2.4	40	1.2	3.9	1.2	103.5	456	11,958	24.9	0.9
2020	3,391	(2.3)	99	2.9	34	1.0	2.0	1.0	108.0	245	12,150	49.7	1.0

기업경쟁력

화장품 ODM 업체

■ 한국/중국/미국법인 보유

- 국내 본사, 뷰티1,2공장, 연구소 및 마케팅센터 운영
- 중국 2개 공장(코스메카차이나, 코스메카쑤저우) 보유
- 2018년 잉글우드랩을 인수하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거점 확보

■ 국내외 다수의 화장품 브랜드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

핵심경쟁력

■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

■ 뛰어난 연구역량

- 전문성 높은 연구개발 인력 인프라 보유
- 연구개발 인력이 전체의 40% 차지(한국법인)
- 국내 총 425건, 해외 총 133건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출원 실적 보유

핵심기술 및 취급 품목

핵심기술

■ BB크림, 톤업크림

- 과거 국내 BB크림의 유행 선도
- 톤업크림,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 사용감, 보습감 우수

■ 신제품 및 신기술

- 코스메슈티컬, 탈모, 다중색상 팩트·그라인딩 팩트, 안티폴루션·마스크프루프, 기능성 아크네 등 개발 지속

주력 제품

■ 스킨케어(기초제품류)

- 스킨/로션, 크림, 에센스, 클렌징, 한방제품 등

■ 기능성제품류

-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제품, OTC 등

■ 메이크업(색조제품류)

- BB&CC크림, 메이크업베이스, 파운데이션, 컨실러, 립 메이크업, 마스크라, 아이라이너, 파우더 등

ESG 현황

Environment

항목	현황
환경 정보 공개	■
환경 경영 조직 설치	▣
환경 교육 수준	■
환경 성과 평가체계 구축	▣
온실가스 배출	■
에너지, 용수 사용	▣
신재생 에너지	■

▣ : 양호 ■ : 미흡 □ : 확인불가

Social

항목	현황
인권보호 정책 보유	▣
여성/기간제 근로자 근무	▣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
공정거래/반부패 프로그램	▣
소비자 안전 관련 인증	■
정보보호 안전 관련 인증	■
사회공헌 프로그램	▣

▣ : 양호 ■ : 미흡 □ : 확인불가

Governance

항목	현황
주주의결권 행사 지원제도	▣
중장기 배당정책 보유	▣
이사회 내 사외이사 보유	▣
대표·이사회 독립성	■
감사위원회 운영	■
감사 업무 교육 실시	■
지배구조 정보 공개	▣

▣ : 양호 ■ : 미흡 □ : 확인불가

- > 당사는 환경 경영 조직을 설치하고 있고, 에너지, 용수 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고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낮으며,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공정거래/반부패 프로그램,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 이사회 내 사외이사를 보유하고 있고, 중장기 배당정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배구조 정보가 공개되어 있음.

* 본 ESG현황은 나이스평가정보평가 분석대상 기업으로 입수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분석 시점 및 기업의 참여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기업현황

한국, 중국, 미국에 생산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

국내외 다수의 화장품 브랜드 업체와 거래 중이며, 판매 국가의 유통구조분석, 법적 규제검토 등을 아우르는 글로벌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개요

동사는 1999년 10월 설립 후 2016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화장품의 ODM/OEM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화장품 선두 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 업체의 기초 및 색조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 충청북도 음성군에 본사와 뷰티1, 뷰티2 공장을, 경기도 판교에 연구소와 마케팅센터를 두고 있고, 중국에 코스메카쑤저우(강소성 소주시), 코스메카차이나(절강성 평호시)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에는 잉글우드랩을 인수하며 미국 ODM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거점을 확보하였다. 잉글우드랩은 미국 뉴저지와 인천 남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 연구개발 활동

동사는 관련 분야의 학·석·박사로 구성된 전문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높은 기술력을 축적해왔으며, 이를 다수의 특허로 등록하여 기술의 권리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포함하여 국내 총 425건, 해외 총 133건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출원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2021.06.30 기준). 또한,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연구과제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표 1].

표 1. 최근 국책 연구과제 수행 현황

과제명	주관부서	연구기간
하이브리드 이산화티탄 코팅 기술 기반 고 자외선 차단 및 저 백탁 특성 동시구현 기능성 신소재 글로벌 선도 화장품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20.08-2022.12
화장품 기업간 네트워크를 통한 미세먼지 차단용 화장품 개발 기술력 구축 및 마케팅 역량강화	산업통상자원부	2018.12-2020.12
피부의 전위차 및 천연소재를 활용한 미세먼지 차단용 화장품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8.12-2020.12
유산균 효소 가수분해물을 이용한 모발 및 항노화 화장품 소재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7.04-2025.12
세계 시장 선도형 융복합 제형 화장품 개발	중소벤처기업부	2017.06-2020.12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시장 현황 및 특성

국내 화장품 시장은 브랜드업체, ODM/OEM 제조업체, 원료/부자재 제조업체로 나뉜다. 브랜드업체는 브랜드 및 제품을 기획하여 자체 생산시설이나 ODM/OEM 제조업체를 통해 생산하고 판매한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대표적인 브랜드업체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ODM/OEM 제조업체는 주문자의 요청에 따른 제품을 생산(OEM)하거나, 주문자의 요구에 맞게 제품을 직접 개발하여 생산(ODM)한다.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코리아 등이 대표적이며, 국내 다수의 중소기업은 ODM 제조업체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형태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의하면, 2019년 화장품 생산실적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16조 2,633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참여업체 수 또한 2015년 3,840개에서 2019년 7,580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COVID-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화장품산업의 수출금액은 전년 대비 15.6% 증가한 7,449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그림 1]. 화장품산업의 수출금액은 최근 20년간 매년 양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우리나라는 세계 화장품 수출 4위 국가로 성장하였다. 전체산업 대비 화장품산업의 수출금액 비율은 2016년 0.8%에서 2020년 1.5%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가는 중국(50.1%), 홍콩(9.4%), 미국(8.4%), 일본(8.4%), 베트남(3.4%) 순이다.

그림 1.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 및 수출금액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1),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통계자료(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보유기술 현황

▶▶ 스마트 팩토리

동사는 제조/생산 전 공정을 통합 관리하여 생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고유한 생산 시스템인 CPS를 보유하고 있다. 동사의 생산자원은 부자재 입하부터 출하까지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및 POP(Point Of Production system)에 의해 통합 관리되며,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는 표준화 시스템인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로 운영되고 있다.

▶▶ **BB크림, 톤업크림**

동사는 특히 BB크림과 톤업크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사용자의 피부톤에 맞춘 조색 기술, 안료를 비롯한 파우더 성상 원료의 안정화 기술, 자연 유래 원료를 통한 보습력 및 영양감의 부여, 적절한 유화제 및 점증제의 선택과 함량 조절을 통한 제형 안정화 및 사용감 구현 등 뛰어난 기술력으로 국내외 브랜드 업체들과의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 **글로벌 토털 OGM 서비스**

ODM은 제조업자가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을 말한다. ODM 프로세스에는 상품기획, 개발, 생산, 품질관리 및 출하가 포함되는데, 동사는 이에 더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품 또는 각국의 판매 및 마케팅 전략에 적합한 제품을 대상으로 OGM이라 불리는 판매 국가의 유통구조 분석, 법적 규제검토 등을 아우르는 글로벌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2].

그림 2. OGM 프로세스



*출처: 동사 IR자료(2021)

표. 재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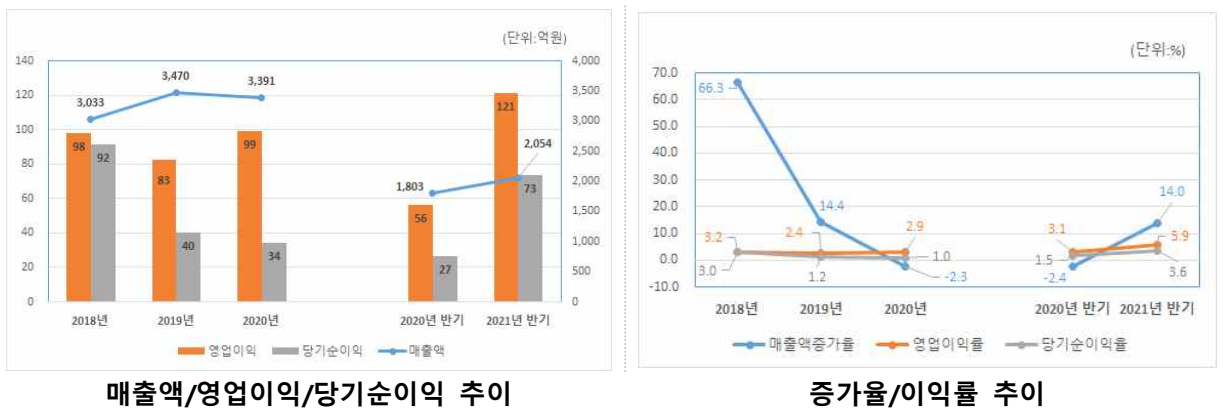
화장품 OEM/ODM 전문기업으로 견조한 실적 유지

동사는 2020년도 내수시장의 침체로 매출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1년 상반기에는 미국과 중국법인 등 해외법인의 매출 증가 및 생산품목 다변화를 통해 전년 동기대비 실적이 증가하였다.

■ 2020년 내수시장 침체로 실적 감소하나 2021년 상반기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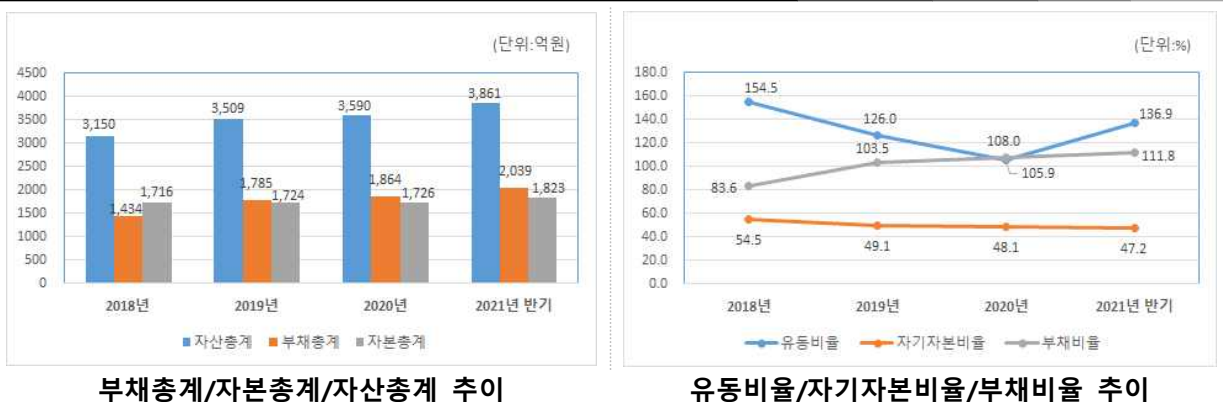
2020년도 연결기준 코로나-19 여파로 내수시장이 침체되어 전년 대비 2.3% 감소한 3,391억 원의 매출을 시현한 가운데, 매출 유형은 기초, 색조화장품 부문의 제품군과 상품군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품 부문이 98%, 상품 부문이 1%, 그 외 용역매출 등 기타 부문이 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1년 상반기에는 미국 고객사 수주 증가, 신규 온라인 브랜드 확보 등으로 해외법인이 실적 개선을 견인하고 있는 바,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한 2,054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다.

그림 3. 동사 연간 및 상반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반기보고서(2021)

그림 4. 동사 연간 및 상반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반기보고서(2021)

■ 매출 감소했으나 원가절감을 통한 영업이익 소폭 개선

동사는 2018년 미국 잉글우드랩 인수를 통해 급격한 외형 성장을 이루고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던 중, 당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로드샵 발주 감소 등으로 매출이 소폭 감소한 바, 최근 3개년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3,033억 원(+66.3% YoY), 2019년 3,470억 원(+14.4% YoY), 2020년 3,391억 원(-2.3% YoY)을 기록하였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이 2018년 3.2%, 2019년 2.4%, 2020년 2.9%를 기록했고, 매출액순이익률은 2018년 3.0%, 2019년 1.2%, 2020년 1.0%를 각각 기록하였다.

2019년 국내 및 중국 공장 가동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 확대 등으로 영업 수익성이 2%대로 하락한 가운데, 2020년에는 실적 감소하면서 매출원가율 상승하였으나, 지급수수료, 무형자산 상각비 감소 등 판관비용 절감 및 경영효율화 전략을 통해 영업 수익성은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어 99억 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였다. 한편, 환율 하락으로 인한 외환차익 감소, 외화환산손실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순이익은 34억 원을 기록하는 등 전년대비 이익 규모가 소폭 축소되어 미흡한 수익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 2021년 상반기 매출 증가 및 수익성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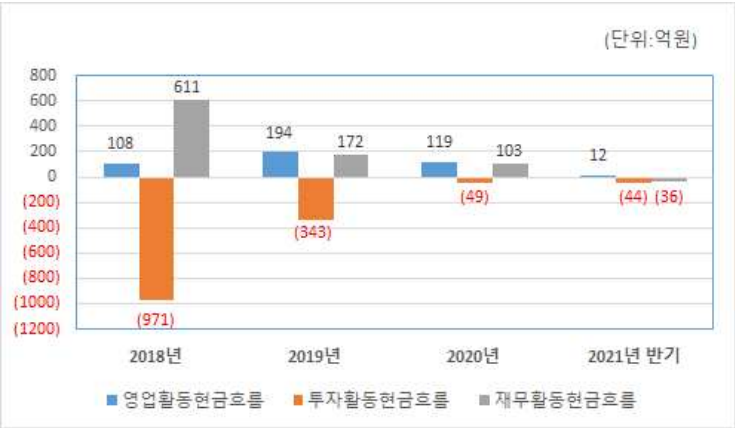
2021년 상반기에는 해외 법인의 매출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14.0% 증가한 2,054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매출 신장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의 완화 및 원가 부담의 완화로 전년 동기대비 개선된 매출액영업이익률 5.9%, 매출액순이익률 3.6%를 기록하였다.

한편, 2021년 6월말 기준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영업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부채 규모 확대로 자기자본비율 47.2%, 부채비율 111.8%를 기록하여 2020년 결산 대비 소폭 저하되었으며, 다소 높은 차입 비중(차입금의존도 32.7%)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 부담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자금흐름 무난, 기말 유동성 확충

2020년 연결기준 순이익 규모는 축소되고 있으나, 감가상각비 등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의 가산 및 매출채권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최근 3년간 정(+)의 상태를 유지하였다. 당기에는 119억 원의 영업현금이 유입되었고, 이를 통해 토지,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취득 등에 따른 투자활동 소요자금 49억 원을 충당하였으며, 잔여 자금 및 추가 차입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내부 유보한 바, 기말 현금이 156억 원에서 314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무난한 자금흐름을 나타내었다.

그림 5.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반기보고서(2021)

Ⅲ.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코스메카차이나로 생산역량 집중,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연구개발 지속

코스메카포산 공장과 코스메카차이나 공장을 통합하며, 품질·가격·납기·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중국 지역에서 양호한 매출성장을 보이고 있다. 연구개발 및 특허 취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ESG 활동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 주요 사업 이슈

동사는 기존 중국 내 3개의 공장(코스메카차이나, 코스메카쑤저우, 코스메카포산)을 운영 중이었으며, 이 중 코스메카포산 공장은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포장 전문 공장이었다. 2021년 9월 30일 코스메카포산 공장의 임대계약이 만료되며 계약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2019년 9월 가동 개시한 코스메카차이나로 통합하여 생산체계를 구축하였다. 중국 내 생산능력은 변동이 없으며, 중국 로컬 고객사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제조부터 납품까지의 원스톱 생산 시스템을 통해 품질·가격·납기·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사의 중국 지역 매출은 90% 이상이 중국 로컬 고객사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하며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법인별 연간 생산능력은 코스메카코리아 4.01억 개, 잉글우드랩 1.27억 개, 잉글우드랩코리아 0.24억 개, 코스메카차이나 1.28억 개, 코스메카쑤저우 0.39억 개다[표 2].

표 2. 법인별 생산능력

법인명	생산능력(억 개)
코스메카코리아	4.01
잉글우드랩	1.27
잉글우드랩코리아	0.24
코스메카차이나	1.28
코스메카쑤저우	0.39
합계	7.19

*출처: 동사 IR자료(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기술에 대한 향후 전망

ODM 사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객사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개발 역량이 필수적이다. 동사는 설립 초기부터 연구개발에 집중하였고,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가 계속되고 있으며, 임직원 중 연구개발 인력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한국 법인 기준). 코스메슈티컬, 제타포텐셜, 3중 기능성 BB크림, 톤업크림, 탈모, 동물용 의약외품, 다중색상 팩트·그라인딩 팩트, 안티폴루션·마스크프루프, 기능성 아크네 등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특허를 취득하고 있다[그림 6] [표 3].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차별성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6. 동사의 핵심역량



*출처: 동사 IR자료(2021)

표 3. 최근 특허 취득 현황

특허명	등록번호	등록일	출원인	최종권리자
야생 딸기잎 추출물, 플로레틴 및 에델바이스 켈러스 배양추출물을 함유하는 항산화 효능을 갖는 화장료 조성물	10-2302400	2021.09.09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
복합 히아루론산을 함유하는 화장료용 조성물	10-2289551	2021.08.09	제이투케이 바이오, 코스메카 코리아	제이투케이 바이오, 코스메카 코리아
링 형상의 흡수재를 구비한 화장품 용기	10-2280313	2021.07.15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
용기 형상의 흡수재를 구비한 화장품 용기	10-2280317	2021.07.15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
고전압 펄스 전기장 처리를 이용한 차가버섯 추출물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	10-2271001	2021.06.24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

*출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ESG 활동 현황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ESG 평가는 기업이 고객, 주주, 직원에게 얼마나 기여하는가,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가, 지배구조는 투명한가를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기업에는 지속 가능 경영의 동기를 유발하고 투자자에게는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표 4].

표 4. ESG 구성 요소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핵심 키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 ▪ 탄소배출 저감 ▪ 자원 절약 ▪ 재활용 촉진 ▪ 청정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환경 개선 ▪ 사회적 약자 보호 ▪ 인권 존중 ▪ 고용 평등 및 다양성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한 기업 운영 ▪ 고용 평등 ▪ 법과 윤리 준수 ▪ 반부패 및 공정성 강화

*출처: 효성FMS 뉴스룸, 비즈 트렌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국내에서 ESG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QESG 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2021)에 따르면, 현재 평가기관별 ESG 지표의 세부항목이 달라 같은 기업에 대해 등급 편차가 존재하여 평가대상인 기업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바, 국내 상황에 적합한 K-ESG 지표를 마련하여 표준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화장품 제조업체는 일부 대기업, 코스닥 상장사의 등급이 제시되어 있다[표 5][표 6].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등급은 S, A+, A, B+, B, C, D 7등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스틴베스트의 등급은 AA, A, BB, B, C, D, E 7등급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자산 규모별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동사의 경우, 2021년 10월 서스틴베스트 평가를 진행하여 2021년 11월 중 ESG 평가 등급이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5.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주요 화장품 제조업체 ESG 등급 현황

기업명	ESG등급	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년도
LG생활건강	A	A	A+	A	2020
아모레퍼시픽	A	A	A+	A	2020
코스맥스	B+	B+	B+	B	2020
한국콜마	B+	B	B+	B+	2020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6. 서스틴베스트 화장품 제조업체 ESG 등급 현황

기업명	자산규모	전체 등급	규모별 등급
LG생활건강	2조 이상	AA	AA
아모레퍼시픽	2조 이상	AA	A
코스맥스	5천억~2조	B	BB

*출처: 서스틴베스트(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E(환경) 활동 현황

공개 자료 및 질문지를 통해 동사의 ESG 항목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확인하였다. 동사는 조직의 모든 활동이나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 영향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인증인 ISO 14001:2015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환경 경영 조직을 설치하고 있고, 환경 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에너지, 용수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 S(사회) 활동 현황

동사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9001:2015과 함께 작업자 안전을 위한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산업 보건 및 안전 관리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인 ISO 45001:2018 인증, 화장품 제조 산업의 우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cGMP)인 ISO 22716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표 7]. 반기보고서(2021.06)에 따르면, 동사에서 근무하는 499명의 직원 중 기간제 근로자는 13명(2.6%)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여성근로자는 218명(43.7%)이다.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공정거래 및 반부패 프로그램,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회책임경영에 관한 부문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 G(지배구조) 활동 현황

동사는 일반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 있으며, 2020년,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과거 배당 실시 이력이 있고,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사회는 5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사외이사는 1명이다.

표 7. ESG 관련 인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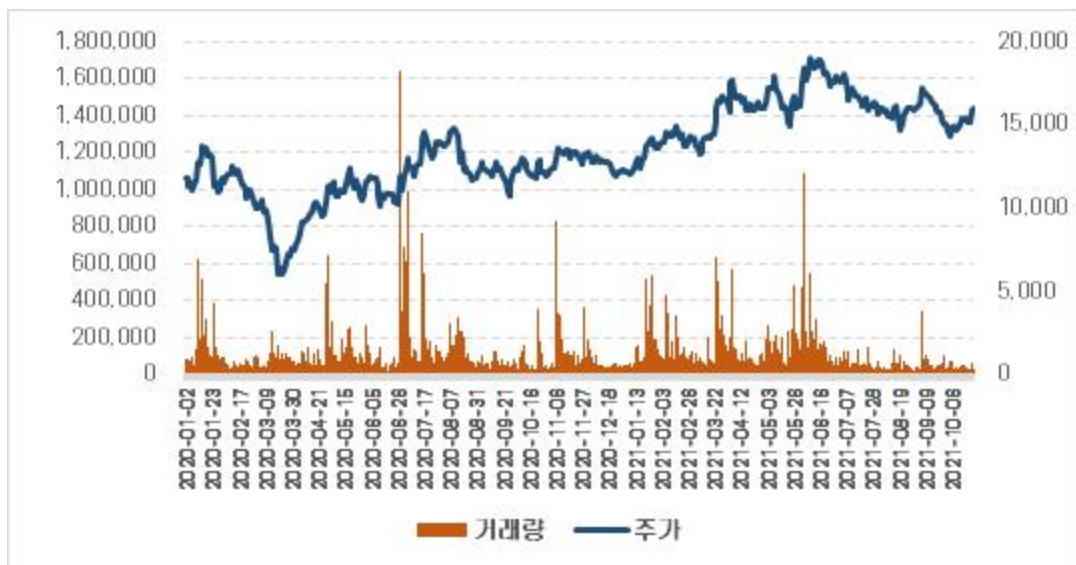
분야	인증	인증명	유효기간
E	환경경영 관련 인증	ISO 14001:2015	2019.02.25.-2022.02.04
S	사업장 안전 관련 인증	ISO 45001:2018	2020.12.18.-2023.12.17
S	제품 안전 관련 인증	ISO 22716	2020.05.12.-2022.05.06

*출처: 동사 제출자료(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유안타 증권	BUY	22,000	2021-08-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로 코로나19에서의 회복 속도는 상이하나 온라인 고객사 증가 → 외형 확대 → 수익성 상승이 동반 하반기도 미국 강세 지속, 중국 외형 확대에 따른 손실 축소가 기대 		
한화투자 증권	Not Rated	-	2021-06-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업체 대비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는 미국 법인과 중국 법인의 턴어라운드 지속 하반기 이후 국내 법인의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된다면 실적 모멘텀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Kisvalue(2021.10)